

**The Gospel of Mark: Sermon Notes**

Sermon 2

Title: "Hello John"

Scripture: Mark 1:4-8

Date preached: September 4th 2022

**Scripture: Mark 1:4-8**

**4 John came baptizing in the wilderness and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remission of sins. 5 Then all the land of Judea, and those from Jerusalem, went out to him and were all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confessing their sins.**

**6 Now John was clothed with camel's hair and with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and he ate locusts and wild honey. 7 And he preached, saying, "There comes One after me who is mightier than I, whose sandal strap I a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loose. 8 I indeed baptized you with water, but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4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5 그러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모두 나아와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6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산꿀을 먹고 살았다. 7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나는 몸을 구푸려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다.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Review**

Last time we began our study of Mark's gospel. I gave you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gospel. As you may remember I described the experience as looking down from an aeroplane at the gospel spread below. With everything laid out neatly we then asked a series of questions. These were what are termed the journalistic question. They are the questions anyone with an inquisitive mind asks when reading something new; who, what, when where, why and how. Answering these questions enables us to better understand and appreciate what we are reading. Let us briefly review our answers to these important questions.

지난번에 우리는 마가복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아래에 펼쳐진 복음을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된 후 우리는 일련의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널리즘적 질문이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새로운 것을 읽을 때 묻는 질문입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 읽고 있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Who wrote it?**

The gospel itself does not carry the name of the author. This is true for all the gospels. Today when people write books they want their name to be prominently displayed. They enjoy the fame and prestige being a published author brings. This is not the case for those the Holy Spirit inspired to write books of the bible. For the gospel writers they wanted all of the attention to be focused on their subject matter;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It was Him and not them they were promoting.

So who wrote Mark's gospel? The traditional view of the church has always been that the writer is John Mark. This was the unanimous view of the early church fathers. We have as our best evidence

the church father Papias who lived in the second century. He was quoted later by Eusebius saying that the gospel of Mark was written by John Mark who knew and interviewed Peter. The gospel then is the recording or reporting of Peter's eyewitness testimony.

What do we know about John Mark? He appears on several occasion in the New Testament. His mother Mary it appears was quite wealthy and had a large house in Jerusalem. This house was used by the early church. John Mark's cousin was Barnabas, another important figure in the early expansion of the church. John Mark accompanied the Apostle Paul and Barnabas on their first missionary journey. Unfortunately he left the trip early which greatly displeased Paul. Paul in fact was so unhappy that he did not want to travel with him again. Later John Mark was reconciled to Paul and went on to be a great help to him and the the early church. Let us turn next to the what.

복음 자체에는 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복음서에 해당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책을 쓸 때 자신의 이름이 눈에 띄게 표시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출판된 저자가 가져오는 명성과 명성을 즐깁니다. 이것은 성경의 책을 쓰도록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모든 관심이 주제에 집중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홍보하는 것은 그분이 아니라 그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교회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는 항상 저자가 요한 마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만장일치의 견해였습니다. 우리는 2 세기에 살았던 교부인 파피아스를 가장 좋은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유세비우스에 의해 인용되어 마가복음은 베드로를 알고 인터뷰한 요한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베드로의 목격 증인의 증언을 녹음하거나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 마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는 신약성경에 여러 번 등장한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꽤 부유했고 예루살렘에 큰 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집은 초대교회가 사용하던 곳입니다. 요한 마가의 사촌은 초기 교회 확장의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인 바나바였습니다. 요한 마가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Paul 을 크게 불쾌하게 했던 여행을 일찍 떠났다. 사실 바울은 너무 불행해서 다시는 그와 함께 여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후에 요한 마가는 바울과 화해하여 그와 초대 교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옆으로 돌립시다.

### **What is Mark's gospel?**

God in His wisdom has given us four accounts of the life, ministry, death and resurrection of His Son the Lord Jesus Christ. We call them gospels. We could simply define a gospel as an announcement, message or proclamation of good news. *The Wycliffe Bible Encyclopedia* summarizes the gospel message in the following way;

*The central truth of the gospel is that God has provided a way of salvation for men through the gift of His son to the world. He suffered as a sacrifice for sin, overcame death, and now offers a share in His triumph to all who will accept it. The gospel is good news because it is a gift of God, not something that must be earned by penance or by self-improvement.*

We also recognise that although the gospels share many similarities they have distinct differences. This reflects the fact that each writer has their own unique style and personality. The Holy Spirit did not turn them into robots. Their individual characters shine through. Also we should note that each gospel has a slightly different focus or intent and frequently a different readership in mind.

Mark is writing primarily to Gentile readers, most probably Romans. The Jesus he is presenting to them is a servant Messiah Jesus. One who came to serve and do the will of the Father. This is why

traditionally Mark's gospel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ox. An animal that lives to work and serve its master.

Mark's gospel is the shortest and simplest of the gospels. It is characterised by its energetic, all action pace. It is a gospel centred more on action than on speeches or teaching. This reflects the tastes or expectations of his readership. The Roman liked stories about men of action. Let us next consider the when and where.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사역, 죽음, 부활에 대한 네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좋은 소식의 발표, 메시지 또는 선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Wycliffe Bible Encyclopedia는 복음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선물로 주셔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복음은 참회나 자기 계발로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서가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뚜렷한 차이점이 있음을 인식합니다. 이는 작가마다 고유한 스타일과 개성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성령은 그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캐릭터가 빛을 발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 복음이 약간 다른 초점이나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다른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가는 주로 이방인 독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며 대부분 로마인일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제시하는 예수는 종 메시아 예수이다. 아버지의 뜻을 섬기고 행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마가의 복음이 소와 관련된 이유입니다. 일하고 주인을 섬기기 위해 사는 동물. 마가복음은 가장 짧고 단순한 복음서입니다. 활기차고 모든 동작 속도가 특징입니다. 그것은 말이나 가르침보다 행동에 더 중점을 둔 복음입니다. 이것은 그의 독자층의 취향이나 기대를 반영합니다. 로마인은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기와 장소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 **When and where was the gospel written?**

Many scholars consider Mark to have been the first gospel written. It was most likely written some time between the mid 50's and the late 60's AD. Mark probably wrote it in Italy and more specifically in the city of Rome. Finally let us briefly touch on why Mark wrote his gospel.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50년대 중반과 60년대 후반 사이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가장 큼니다. 마가는 아마도 이탈리아와 더 구체적으로 로마 시에서 그것을 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Why did Mark write his gospel?**

What was Mark's purpose or intent in writing? Why did he write his gospel? As with all the gospel writers he wanted to make the world aware of the Lord Jesus Christ. This good news could not be kept silent. So Mark wrote because he wanted his readers to recognise who Jesus is. After recognising who He is Mark wants them to believe and have faith in Him for their salvation. He wanted them, and us today to receive the wonderful life changing blessings that come through knowing and loving Jesus.

In today's passage we are introduced to the herald of the Messiah; John the baptist.

Mark 가 글을 쓴 목적이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왜 복음서를 썼습니까? 모든 복음서 저자와 마찬가지로 그는 세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독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글을 썼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인식한 후 마가는 그들이 구원을 위해 그를 믿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그들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함으로써 오는 놀라운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전령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

### **Introduction**

Last time we looked at the first three verses of Mark's gospel. He tells us exactly what it is we are reading. This is an “announcement” of the good news regarding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he one sent by God to save the lost and needy.

Mark also told us that the prophets of old had spoken about this time. He cites Malachi and Isaiah in particular. They had prophesied that before the Messiah there would be a messenger. The arrival of this messenger was to serve as a sign or an indication that the Messiah would be coming soon. So this messenger's job was to herald or warn the people of the king's imminent arrival. The messenger's name was John. Due to his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baptism he became known as John the baptist. Let's meet him now.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의 처음 세 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의 “공표”입니다. 잃어버린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마가는 또한 고대의 선지자들이 이 시기에 대해 말한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말라기와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그들은 메시아 이전에 사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사자의 도착은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표징 또는 표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령의 임무는 왕의 백성에게 임박한 도착을 알리거나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메신저의 이름은 존이었다.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를 만나보자.

**4 John came baptizing in the wilderness and preach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remission of sins. 5 Then all the land of Judea, and those from Jerusalem, went out to him and were all baptized by him in the Jordan River, confessing their sins.**

As with Jesus Mark gives us no background to John. He simply appears fully formed on the scene.

Before we look at what Mark's tells us let's spend a moment talking about what we know about John. We know from Luke's gospel that John was the long awaited child of Zechariah and Elizabeth. His godly, but aged parents had long hoped and prayed for a child. Their prayers had not been answered and it seemed as if they would remain a childless couple. One day when the priest Zechariah is serving in the temple in Jerusalem an angel appears to him. The angel tells him he is soon to have a son that will bring great joy and rejoicing to the world. He will also be great in the sight of the Lord. All of this comes to pass and John is raised following the strict regulations laid down under the Nazarite vow. This means that from birth he was dedicated in service to God. In practical terms it meant that he was never to drink or touch alcoholic products. He was never to cut his hair. And he was not to go near dead things.

As an adult John went to live in the Judean wilderness. Most likely he based himself on the north western side of the Dead Sea. This is a dry, barren and inhospitable place. But John was comfortable and happy to live there. He follows in a long tradition of prophets that chose to live in wild places. Perhaps the solitude brought him close to God. It certainly meant he lived by faith. Trusting that God would provide for his daily needs. Also being away from the temptations and

distractions of city life was no doubt appealing and enabled him to stay focused.

At around 30 years of age he received the call of God and began his ministry. It is at this point that Mark introduces him to us.

Out of the wilderness he comes effectively as the last of the Old Testament prophets. Prepared and ready to speak God's words after 400 years of silence. What then is John's message?

Simply put he is calling on people to confess and repent of their sins so as to be in a good spiritual place for the arrival of the Messiah. The word "repent" is a translation of the Greek word *metanoia*. It describes the process of "changing ones mind, or turning from something after coming to an understanding."

The biblical idea of repentance is to see your life as God sees it. When you do this you realise the numerous ways in which you are living in rebellion to God. This understanding results in you confessing your sins and turning from these ways of living or being and looking towards God. It isn't simply turning from sin but reorienting yourself and striving to live in a way that honors and pleases God.

This was the message that John was preaching. Many we are told were convicted and felt shame. Those that felt this way were then baptized in the Jordan river as a visible sign that they acknowledged their sin and wanted to redirect their lives towards God. The baptism of course didn't save them but it served as a visible sign that they were serious about their sins.

His ministry met with great success. Mark tells us that all the land of Judea and the people from Jerusalem went to him and were baptized in the Jordan River. What a sight it must have been. How we need such a period of genuine mass repentance today.

It's interesting to compare John's approach to how the gospel message is shared today. Typically today sin is minimised. Even in many churches it's often overlooked or ignored. The reason is that we don't want to offend people by telling them that the things they are doing are in active rebellion against God. So let me be clear. We are all sinners. We have all broken God's laws and are guilty. The just punishment for breaking God's laws is death. Unless you have confessed and repented of your sins and then put your faith in Jesus Christ your sins will bring you death. Let us read on.

예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가는 요한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현장에서 완전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Mark's 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기 전에 John 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요한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스가랴와 엘리사벳의 자녀였음을 압니다. 그의 경건하지만 연로한 부모는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자녀가 없는 부부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 스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천사는 그에게 곧 세상에 큰 기쁨과 기쁨을 가져다 줄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요한은 나사렛 서원에 명시된 엄격한 규정에 따라 살아납니다. 이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그가 알코올 제 품을 마시거나 만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물건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성인이 된 요한은 유대 광야로 갔습니다. 아마도 그는 사해의 북서쪽에 기반을 두었을 것입니다. 이곳은 건조하고 황량하며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나 존은 그곳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야생 지역에서 살기로 선택한 선지자들의 오랜 전통을 따릅니다. 아마도 고독이 그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또한 도시 생활의 유혹과 산만함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매력적이었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30 세 전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Mark 는 그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광야에서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효과적으로 오셨습니다. 400 년의 침묵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메시야가 오실 때를 위한 좋은 영적인 위치에 있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metanoia* 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바꾸거나 깨달은 후에 무엇에서 돌이키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당신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할 때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의 수많은 방식을 깨닫습니다. 이 이해는 당신이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러한 생활 방식이나 존재 방식에서 돌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전하고 있던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느낀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한다는 가시적인 표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세례가 그들을 구원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가시적인 표시로 작용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마가는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서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광경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진정한 대중 회개의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날 복음 메시지가 어떻게 공유되는지에 대한 요한의 접근 방식을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죄가 최소화됩니다. 많은 교회에서도 종종 간과되거나 무시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말하여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의 정당한 형벌은 죽음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두지 않는다면 당신의 죄는 죽음을 가져올 것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6 Now John was clothed with camel's hair and with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and he ate locusts and wild honey. 7 And he preached, saying, "There comes One after me who is mightier than I, whose sandal strap I am not worthy to stoop down and loose.**

Mark here gives us an indication of the lifestyle of John the baptist. His appearance, attitude and lifestyle are all patterned after the Old Testament prophet Elijah. He too was a man comfortable living in wild and rugged places.

John's clothing was camel hair. This does not mean the skin of a camel but rather clothing woven from the hair of a camel. This attire was held in place by a leather belt. In terms of diet John survived on what Australians refer to as "bush tucker." Food that can be found in the wild. In particular Mark mentions locusts and wild honey. In the west we are rather repulsed at the idea of eating insects. But in many places, Korea included eating insects is not regarded as strange. I've eaten grasshoppers and found them to be delicious. Under the Jewish dietary laws most insects could not be eaten, however it was permissible to eat locusts (Lev 11:22). You may be surprised to learn that locusts are an excellent source of protein and contain a variety of fatty acids and minerals. Honey is what nutritionists describe as a "super food." A food source that is almost too good to be true. I'd prefer to say that honey is something God in His wisdom and grace has given to us. It is a natural anti-bacterial and anti-viral as well as being an excellent source of energy. Raw or wild honey contains nutrients that regular honey does not. This was the kind of honey John enjoyed.

Perhaps he dipped the locusts into the honey before eating them. Are you feeling hungry?

John's clothing and diet demonstrate something important. They illustrate to us that he was purely and exclusively focused on his God given mission. The cares and concerns that most of us live with did not trouble John. He had no concern over eating good rich foods and having material possessions. He lived a life of simplicity. He was both intent and content in serving God.

I cannot think how much happier we would all be if we could learn to be happy and content with what God has given us. Covetous desires for more, bigger and better only ever make us miserable.

In verse 7 Mark tells us about the message John preached. He was telling people to repent and turn back to God. This was because of who would soon step into world history. He refers here to none other than the Messiah; The one anointed by God with the power to save. John although described by Jesus as being the greatest human being ever born knew his place. He knew that compared to the Lord Jesus Christ he was essentially nothing. In the ancient world the untying of sandals and the washing of feet was the most menial of jobs. It would be the work of the lowest slave or servant. John is in effect saying that he is not worthy of even doing this most menial task for the Lord Jesus. What a lesson John is for many puffed up and prideful people in the church today. He preached Christ only and never himself. Let us conclude our passage today with verse 8.

여기 마가는 세례 요한의 생활 방식을 보여줍니다. 그의 외모, 태도, 생활 방식은 모두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본떠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역시 거칠고 거친 곳에서 살기에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옷은 낙타털이었습니다. 이것은 낙타 가죽이 아니라 낙타 털로 짠 옷을 의미합니다. 이 복장은 가죽 벨트로 고정되었습니다. 식이 요법 측면에서 John은 호주인이 "부시 터커"라고 부르는 것으로 생존했습니다. 야생에서 볼 수 있는 음식. 특히 마가는 메뚜기와 들꿀을 언급합니다. 서양에서 우리는 곤충을 먹는다는 생각에 오히려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 한국은 곤충을 먹는 것을 포함하여 이상하게 간주되지 않습니다. 메뚜기를 먹어봤는데 맛있다고 하네요. 유대인의 음식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곤충은 먹을 수 없었지만 메뚜기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레 11:22). 메뚜기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며 다양한 지방산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꿀은 영양학자들이 "슈퍼 푸드"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음식 소스입니다. 꿀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천연 항박테리아 및 항바이러스제일 뿐만 아니라 우수한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생꿀이나 야생 꿀에는 일반 꿀에는 없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John이 즐겼던 종류의 꿀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메뚜기를 먹기 전에 꿀에 담근 것입니다. 배고파요? 존의 의복과 식단은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전하고 배타적으로 초점을 맞추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대부분이 안고 사는 염려와 염려는 존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음식을 먹고 물질적 소유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의도와 만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행복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더, 더 크고 더 나은 것에 대한 탐욕스러운 욕망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7절에서 마가는 요한이 전한 메시지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곧 세계사에 발을 들일 사람 때문이었다. 그는 여기서 메시아 외에는 아무 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으로 구원의 권세를 받은 자. 요한은 예수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으로 묘사했지만 그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자신이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샌들을 풀고 발을 씻는 일은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낮은 종이나 종의 일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사실상 자신이 주 예수님을 위해 이 가장 하찮은 일을 할 자격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

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많은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요한은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만을 전파했고 자신은 결코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8 절로 마치겠습니다.

### **8 I indeed baptized you with water, but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John here also contrasts his baptism with the baptism of the Messiah to come. John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the baptism he performed. He baptised people in water which served to temporarily cleanse them. At the end of a long day we have a nice shower and feel clean. It's an external thing however and the following day we are dirty and need another shower. In other words a dipping in water can never bring about internal regeneration. A shower is unable to clean our wicked hearts. But when the Lord Jesus came He would bring baptism in the Holy Spirit. This is when God in the person of the Holy Spirit enters and dwells permanently within a believer. This, and only this can bring about regeneration. This is how the Pulpit Commentary transcribes John's words here;

‘Christ will pour his Holy Spirit so abundantly upon you, that he will cleanse you from all your sins, and fill you with holiness and love and all his other excellent graces.’

This is something John could not deliver with his form of baptism.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meet the Lord Jesus as He steps into Mark's gospel for the first time in person.

여기서 요한은 또한 자신의 세례를 장차 올 메시아의 세례와 대조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행한 침례의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정결케 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긴 하루의 끝에 우리는 멋진 샤워를 하고 깨끗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의 일이며 다음 날 우리는 더러워지고 또 다른 소나기가 필요합니다. 즉, 물에 담그는 것은 결코 내적 재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소나기는 우리의 사악한 마음을 청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인격으로 신자 안에 들어와 영속적으로 거하시는 때입니다. 이것, 그리고 이것만이 중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단 주석이 존스의 말을 여기에서 옮겨 적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너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리니 이는 너희를 너희의 모든 죄를 거룩함과 사랑과 그의 다른 모든 고귀한 은총으로 채우라!' 이것은 요한이 세례의 형태로 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마가복음에 받을 내딛는 주 예수님을 만납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 **1 The importance of repentance**

As I said during the sermon repentance, *metanoia* means recognising you are wrong and turning back to God. What's vitally important, and often overlooked when it comes to repentance is the dual concept of changing one's mind and then changing ones' actions. One without the other simply will not suffice. So for example it's not sufficient to determine that looking at pornographic images is morally wrong but then continue to do it. Equally, it is not sufficient to determine not look at pornography personally but still hold the belief that there nothing really wrong with doing so. Thought must be combined with action. So the full biblical definition of repentance is a change of mind that results in a change of action. So it's much more than simply feeling bad or sorry for a sin you have committed.

Let me give you an example. Imagine two brothers playing together. The older brother takes the

young brother's toy and the younger brother begins to cry. Soon the boy's mother appears and scolds the older brother. "Say sorry to your brother for taking his toy." The older brother mumbles an apology and the mother leaves. The older brother was not really sorry. Sorry perhaps that he got caught and angered his mother. He has no real intention to change.

He does not really think he did anything wrong. Often in our Christian lives we are like the older brother. We say sorry to God and ask for His forgiveness, but we do not really change our minds.

We live in a time and culture that has an aversion to the whole concept of sin. We don't want to offend, or call people out on their sins. We want to tell people about how wonderful Jesus is but the sin part is likely to annoy or cause offence. So we leave that part out. The danger is that without really recognising the devastating consequences of sin people will never truly repent. They will never change their mind and agree with God that the sin in their lives is terrible. Let us then never minimise sin in our own or others lives. Let us remember that no matter how wicked we are Christ's blood is sufficient to wash us clean. May we regularly repent of our own sins and encourage those around us to do the same.

회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메타노이아는 자신이 틀렸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것은 마음을 바꾼 다음 행동을 바꾸는 이중 개념입니다. 다른 하나가 없으면 단순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음란 이미지를 보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계속 그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행동과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대한 완전한 성경적 정의는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해 기분이 나쁘거나 미안한 것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형제가 함께 노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형은 동생의 장난감을 빼앗고 동생은 울기 시작한다. 곧 소년의 어머니가 나타나 형을 꾸짖는다. "장난감을 가져간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형은 사과를 중얼거리고 어머니는 떠난다. 형은 별로 미안해하지 않았다. 그가 붙잡혀서 그의 어머니를 화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변화할 진정한 의도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종종 우리는 형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전체적인 개념을 혐오하는 시대와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말하고 싶지만 죄 부분이 성가시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생략합니다. 위험은 죄의 파괴적인 결과를 진정으로 인식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결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결코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삶에 있는 죄가 끔찍하다는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서 죄를 결코 최소화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무리 사악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정기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 **2 The proper focus**

John the baptist is a biblical hero. However he is one that none of us would really like to emulate. Imagine giving up all you worldly possessions, going up into the mountains and surviving on what you could find to eat in the woods. No thanks.

But being serious for a moment John shows us a model of how focused and single-minded we really

should be. I want you to think for a moment about how much time each day you spend focused on God. How much time do you spend reading the bible, praying, meditating on, or studying God's Word. Two hours, one hour, 30 minutes, 10 minutes, 5 minutes. Compare this with the time you spend looking at or engaging with your mobile phone or watching TV. My point should be obvious. Modern life and all the things we cram into it keep us from God.

One of Satan's greatest and most effective weapons is distraction. All he has to do is give you something that takes your thoughts away from God, and he wins. This was the reason John lived alone in the wilderness. It meant he could spend quality time with the Lord. He was free from the distractions of city life. We cannot give everything up and go and live in the wild. We can however be more thoughtful and deliberate with how we use our time. Let all of us think about where our focus ought to be directed. On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세례 요한은 성경의 영웅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중 누구도 닮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가 숲에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살아남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고맙지 만 사양 할게. 그러나 잠시 진지하게 준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고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보내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두 시간, 한 시간, 30 분, 10 분, 5 분. 이것을 휴대 전화를 보거나 사용하거나 TV를 보는 데 보내는 시간과 비교하십시오. 내 요점은 분명해야 합니다. 현대 생활과 우리가 거기에 집어넣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가장 위대하고 효과적인 무기 중 하나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무엇인가를 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는 승리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광야에서 홀로 살았던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도시 생활의 산만함에서 자유로웠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야생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사려 깊고 신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초점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